

광양시의원들 부적절 해외연수 논란

의원 7명이 전체의원 13명에 편성된 예산 4158만원 모두 사용 광양참여연대, 비용 공개·초과 경비 즉각 반납·사과 강력 촉구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외유성 해외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초과 경비에 대한 즉각 반납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출발 4개월을 맞은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보인지, 관광성인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방의원들의 공신력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엄청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진행된 해외연수와 다녀온 후의 부실한 연수보고서 등은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초과 해외연수 경비 즉각 반납 ▲공무 국외연수계획서 사

전 고지 ▲해외연수비용 결산 공개 ▲해외연수 계획 심사위원회 시의원 배제 ▲광양시의회 시민감독관제 운영 등을 요구했다. 앞서 광양시의회 의원 7명은 최근 9박 10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4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자부담 없이 올해 13명 전체 의원에 책정된 예산을 몰아 써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 의회사무국은 올해 본예산에서 의원 13명 1인당 320만원 씩 총 4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적으로 1인당 400만원 가량 드는데도 소요예산은 1인당 594만원으로 잡아 7명이 자부담 없이 모두 4158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해 의원 7명이 전체 의원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연수과정에서 연수를 위해 광양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경비에 차량 대여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관계기관이 확인 중에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진월면 망덕산과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짚와이어가 추진된다. 파란선은 짚와이어 설치 예정선.

망덕산~배알도 수변공원 짚와이어 설치 추진

광양시는 진월면 망덕산과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짚와이어 설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단위로 최초로 도입되는 짚와이어는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총 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망덕산에서 출발하는 짚와이어는 약 900m 규모로 외출활강시설 3라인과 회수시설 1라인으로 구성됐다. 시는 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이달 16일까지 공법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번 달 내에 제안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 공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공법 선정 후 실시시설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거쳐 오는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섬진강 레저관광시설을 민선7기 5대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

이 테마파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같은 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해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험레저시설을 많이 찾고 있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섬진강 하구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게 됐다"며 "이번 짚와이어 설치가 마무리되면 올해 준공한 수변공원~배알도 간 해상보도교, 내년 착공 예정인 배알도~망덕포구 간 해상보도교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망덕산부터 복원을 기반으로 카누, 카약, 제트 보트 등 수상레저시설이 도입되고 마린나 개발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망덕포구 일대가 그야말로 모험과 수상레저 관광의 핵심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의회 국내 우수 테마파크 벤치마킹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위해 에버랜드 등 견학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국내 우수 테마파크를 견학하는 등 역량을 모으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어린이테마파크의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1박2일간 국내 우수 테마파크로 알려진 용인에버랜드, 서울롯데월드, 흥천비발디파크, 대구이월드 등 4곳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성희 시의회 의장, 시의원 9명, 시 공무원 21명 등이 함께 테마파크별 운영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살폈다. 이들이 찾은 곳은 20년~40년 이상 된 테마파크지만 인근 배후도시 인구가 많고 테마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 광양시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광양시와 의회의 방문에 대해 에버랜드 관계자는 "아무리 큰 테마파크라도 단일사

업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면서 "타깃 설정과 주변 숙박이나 쇼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고 자주 찾아갈 수 있는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광양의 경우 실내형 놀이시설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실외형 테마파크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관계자는 "오션월드는 수도권으로 70~80곳의 무료 셔틀버스를 매일 운영하고 있다"며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수요자가 많은 배후인구가 관건이고,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정서상 실내형 물놀이 시설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이월드 대표는 "요즘 테마파크의 트렌드는 단순히 방문객이 많이 오고 흥미 있는 놀이시설을 타는 것에서 벗어나 하루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롯데월드를 찾은 정현복 광양시장 일행이 관계자로부터 테마파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양시 제공>

를 즐기다 가는 곳으로 바뀌었다"며 "키즈 카페나 테마파크 운영자의 자문을 통해 방문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찾고, 기존의 성공한 테마파크 모델을 선정·접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고 자문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벤치마킹을 통해 어린이테마파크가 광양에 필요한 사업임을 시의회와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에 맞는 최적의 테마파크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어린이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시민토론회, 심포지엄,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 컨사인먼트 자재 창고 통합·재배치 작업 완료

포스코 광양제철지원센터가 지난 8일 6월부터 추진해온 '광양제철소 컨사인먼트 자재 창고 통합 및 재배치' 작업을 완료하고 '5S 인증서' 수여식(사진)을 가졌다. 컨사인먼트 자재 창고는 공급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상시 보관함으로써 필요한 자재를 언제든지 신속히 공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 창고 내 설치한 위탁 창고이다. 그동안 광양제철소는 공장 증설에도 불구하고 중앙 창고의 규모는 변동이 없어 자재 공간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자재지

원센터는 2개소로 분산 운영되던 컨사인먼트 자재 창고를 통합하고 적치대를 설치해 컨사인먼트 자재 저장 공간을 늘리는 등 대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또 광양제철소는 수천 개에 달하는 자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재 관련 정보와 이미지를 시각화해 각 적치대에 부착하는 '실질관리(Visual Management)'를 강화했다. 이번 컨사인먼트 자재 창고 통합 및 재배치 작업을 통해 광양제철소는 자재 배송시간을 대폭 줄였으며 더욱 많은 품목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지원센터가 지난 8일 6월부터 추진해온 '광양제철소 컨사인먼트 자재 창고 통합 및 재배치' 작업을 완료하고 '5S 인증서' 수여식(사진)을 가졌다.

명당3지구 상업용지 등 40필지 수의계약 매각키로

광양시, 선착순 분양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내 지원·상업·주차장시설용지 40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지구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에 43만7998㎡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수의계약 대상 부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지원시설용지 36필지(1만4603㎡), 상업시설용지 1필지(715㎡),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6722㎡) 등 총 40필지(2만2040㎡)다. 계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광양국가산업단지인 명당3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로 사용할 실수요자 각 부지별로 용도가 적합해야 한다. 수의계약에 나설 실수요자는 우선 한

국가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시정 산단과로 방문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분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양시정 산단과(061-797-3119-3116)로 하면 된다. 명당3지구 국가산업단지는 국도 2호 선과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물류의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 배알도 수변공원과 수변공원~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와 더불어 내년 중에 설치될 예정인 진월면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짚와이어 등 휴식과 생산이 어우러진 최적의 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